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 과목의 통합 문항 출제 방안: 지리와 역사를 중심으로

서민철* · 김기남** · 신소연***

A Proposal for Constructing Integrated Items in the 2028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tegrated Social Studies: Focusing on Geography and History Area

Min-Cheol Seo* · Ki-nam Kim** · So-yeoun Shin***

요약 : 본 연구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사회 단일 과목 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과의 통합 문항 출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과거 수능에서의 통합 문항은 통합의 수준은 높았지만, 이의신청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출제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예시 문항과 예비 시행에서 나타난 문항 유형은 통합 문항의 감소, 교과서 근거의 강한 해석 등으로 통합 문항을 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진술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통합 문항 출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4가지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 통합 문항, 재진술 방식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framework for constructing integrated items for the Integrated Social Studies subject in the reforme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system,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in the 2028 academic year. While this reform may appear to echo the integrated approach of the 1990s CSAT model, the current context presents unprecedented challenges—most notably, the formalization of a claim-issuing system for all CSAT items. This regulatory environment has discouraged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cross-disciplinary items and heightened the demand for strict alignment with the official curriculum. In response to these constraints, this study introduces a practical and sustainable item-construction scheme centered on the paraphrasing technique. This approach allows for the generation of curriculum-relevant yet contextually rich questions that transcend textbook dependency. Four illustrative example items are presented, each employing novel materials and demonstrating the application of the paraphrasing strategy. These examples highlight the viability and educational potential of this method in fostering meaningful integration within the Common Social Studies subject under the new CSAT regime.

Key Words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in 2028 academic year, Integrated social study, Integrated items, Paraphrasing strategy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eomn@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ygnusv@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ss332@kice.re.kr)

I. 서론: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통합사회 과목의 통합 문항 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수능의 사회탐구 9개 선택과목 체제는 2027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2028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통합사회 과목만 시험을 보게 된다. 그 안에 따르면 과거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있었던 통합형 사회탐구 영역의 통합 문항을 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새 대입 체제가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이다(교육부, 2023년 12월 27일자).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3년 12월 27일자). 이 안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만을 출제하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서의 선택과목 역시 폐지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만을 출제하는 정책을 확정하였다. 시험 시간은 10분 늘렸고, 문항 수도 5문항 늘려 40분, 25문항 체제가 되었다. 아울러 배점은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하여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였다. 이것은 대입 제도의 큰 개편으로 입시 업계에 상당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동아일보, 2023년 10월 11일자; 서울신문, 2023년 10월 11일자; 베리타스알파, 2023년 12월 27일자). 그럼에도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강하였기 때문에 논란은 크지 않았고 상당 기간 새로운 입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30년 전의 과거, 최초의 수능과 비슷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때와 같이 전체 문항 중에서 일부는 분과적으로, 다른 일부는 통합적으로 출제하게 된다. 분과적 문항은 현행과 같이 교과서에 기반하여 해당 키워드가 있는 문항을 출제하되, 내용 변동만 고려하면 되므로 출제 방안 이슈가 새롭게 제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합 문항은 다르다. 구 수능 체제에서도 통합 문항은 활발히 출제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4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통합 문항의 출제 방안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통합사회 과목의 통합 문항을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통합사회 과목은 애초에 수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었기 때문

에, 교과서 서술은 다양각색이 되어 출제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의 타당성이 검정 교과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통합사회 인만큼 통합적인 문항을 다수 출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신소연, 2024; 신소연 등, 2025).

주지하듯 통합사회는 배경이 되는 모학문 분과 4개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성격 진술 및 목표 진술, 내용체계표, 제1단원 서술에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라는 4개 과목군의 배경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과목군이란 현행 수능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각각 윤리 과목군(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지리 과목군(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과목군(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 과목군(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을 일컫는다. 이 구분이 각 과목 및 과목군의 배경인 모학문이자, 사범대 학과 편제의 단위이기도 하며, 교육과정 개편에서의 주요 행위자 그룹이기도 하다. 통합사회는 바로 이 4개 과목군의 통합을 지향하며, 주제별로 묶어진 성취기준 진술이 교육과정에 적절히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서 역시 4개 과목군 배경의 저자들에 의해 8종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떻게 교과서 근거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통합 문항을 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9월, 14개의 통합사회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고, 2025년 4월 16일에는 25문항 전체를 출제할 예비 시행 문항을 공개하였다. 예시 문항에서는 14개 문항 중 7~8개 문항이 통합 문항으로 제시되었고, 예비 시행에서는 25문항 중 4개 문항이 통합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예시 문항에서는 문항 수 기준으로 50% 이상이므로 통합 문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비 시행에서는 25문항 중 4문항이므로 16%로서 높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마도 통합사회에서 통합 문항의 출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방증일 것이다. 통합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문항을 지속 가능하게 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2028학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통합사회 과목의 통합 문항 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기존에 제시된 예시 문항 및 예비 시행 문항의 통합 문항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지속적인 출제가 가능하면서도 통합성의 취지를 살린 통합 문항을 출제 방안을 사례 문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통합사회의 통합 문항 관련 선행 연구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연구 성과 가운데는 신소연 등(2025)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출제 및 발전 방안-지리와 역사 교과 영역의 통합을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신소연(2024)의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 및 문항 분석을 통한 역사 영역 적용 검토와 개선 방안”과 김기남(2024)의 “통합사회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지정에 따른 지리 교과 영역 중심의 사회과 통합 평가 문항 연구”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초기 수능의 통합형 문항을 분석한 김재근 등(2018)의 “통합사회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초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형 문항 분석-”도 중요한 참고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22 개정 통합사회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참고할 문헌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해 방법을 제시한 함경립(2024)과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내용 요소 관련 도시하천 복원을 사례로 제시한 임영신(202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송성민 등(2020)의 과목군 간·내 통합 방식을 제시한 분류법을 참고하여 통합사회 문항의 유형을 자료 통합형, 답지 통합형, 자료·답지 통합형, 그리고 과목군 간 통합, 과목군 내 통합, 과목 내 문항으로 구분해 보았다(표 1).

여기서 ‘과목 내’ 문항은 통합 문항이 아니다. 주목되는 바는 ‘과목군 내 통합’을 통합 문항으로 설정한 것이다. 예컨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통합한 문항을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볼 때 ‘통합’ 문항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통합의 방식에서 ‘자료통합형’이란 자료만 통합하고 답지에서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고, ‘답지통합형’이란 자료는 통합하지 않으면서 답지만 통합하는 경우로서 혼란 유형이라 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24년 9월의 14개 예시 문항에서도 자료통합형 2 문항, 답지통합형 3 문항, 자료+답지 통합형이 6 문항으로 뚜렷이 자료+답지 통합형이 많았다.

신소연 등(2025)의 연구와 김기남(2024)의 연구에서

는 재진술(paraphrasing) 기법을 활용한 통합 문항 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진술 기법이란, 자료로 주어지는 지문이나 그래프, 지도 등을 읽고 해석하는 답지를 제시하고 그 진위를 물으면서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동안 언어영역 비문학 문항에서 주로 사용해 온 양식으로서, 이것을 도입하면 교과서에 내용 진술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주제나 키워드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례로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재근 등(2018)의 연구는 과거 수능(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의 통합 문항을 분석하여, 1999학년도 이후 통합 문항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재근 등, 2018:57). 이것은 통합 문항의 출제가 점점 쉽지 않게 되어간다는 것이고, 특히 수능에서 최초로 복수정답을 인정한 2004학년도 언어영역 사태 이후 어려움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회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체제로 전환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에서의 사회과 통합형 문항을 분석한 연구(배화순 등, 2018)가 있고, 과거 수능의 통합 문항과 성취도 평가에서의 통합 문항을 비교하는 연구(송성민 등, 2020)가 있다. 이 두 연구는 현행 성취도 평가에서의 통합 문항을 분석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통합사회 과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성경희·장의선(2019)의 연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을 성취도 평가에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평가 틀을 개발하고 예시 문항까지 제안한 연구이다.

이와 같이 통합사회 과목의 통합 문항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으로 통합사회 수능 예시 문항을 제시한 교육부 보도자료(교육부, 2024년 9월 27일자) 외에, 세 편의 일반 논문(김기남, 2024; 신소연, 2024; 신소연 등, 2025) 뿐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출제 방안 연구가 제출되어 2년 앞으로 다가온 2028학년도 수능에서의 통합사회 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2024년 9월의 예시 문항 분석, 2025년 4월의 예비 시행 문항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통합사회 통합 문항 출제 방안을 도출할

표 1. 통합사회 문항 유형 구분

	과목군간 통합	과목군내 통합	과목 내
자료통합형	-	-	-
답지통합형	-	-	
자료+답지통합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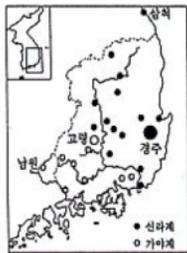
것이다. 그리고 그도출된 방향에 따라 4개의 표본 문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존 통합 문항 분석과 대안적 개발 방향 모색

1. 과거 수능에서 심화된 통합의 현실적 한계

현재 예시 문항으로 제시된 통합 문항과 예비 시행 문항에는 본 논문에서 ‘심화된 통합’이라고 부르거나 하는 통합 문항이 없는 이유가 있다. ‘심화된 통합’이란 과거 수능에서 시도된 바 있는 가장 수준 높은 통합 문항으로써 하나의 답지(선택지) 수준에서의 통합 문항이다. 즉 하나의 답지 진술이 하나의 과목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답지 진술로 둘 이상의 과목군에 귀속되는 명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두 배경 학문을 융합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도록 하는 답지로서 객관식 선다형 문항으로서는 가장 심화된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은 다소 야심 찬던 기 확인 과거 수능에서만 찾을 수 있다.

58. 다음 지도는 우리 나라 동남부 지역에 있는 5세기 경 고분에서 두 계통의 장신구가 출 토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 분포를 보고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2점]



(선의 크기는 출토량의 반영)

- ① 불교 계파에 따라 서로 다른 계통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 ② 낙동강 하류는 곡류 하천이어서 신라가 쉽사리 서쪽으로 건널 수 있었다.
- ③ 각지에서 신라 장식구를 패용한 자들은 신라 왕이 파견한 지방 관들이었다.
- ④ 고령 이남의 낙동강을 경계로 동·서의 두 지역은 문화권이 서로 구분되었다.
- ⑤ 경주를 제외한 낙동강 유역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림 1. 1997학년도 수리탐구2 문항 58번, 정답: ④

그림 1의 문항은 이와 같은 심화된 통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문항은 역사와 지리를 통합한 문항으로서, ②번과 ⑤번 진술은 역사와 지리 내용이 하나의 답지 진술 안에 녹아들어 있다. ②번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동강 하류가 곡류 하천인지 파악해야 하며, 또 그 하류는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마도 출제진은 남강과의 합류 지점 이남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가야와 신라의 문화권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틀린 진술로 의도했을 것이다. ⑤번 진술은 ‘유역’의 개념을 뚜렷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 분명히 낙동강 유역의 서쪽에는 대가야 중심 연맹체가 있었다. 그러나 낙동강 ‘유역’이란, 낙동강의 좌우를 모두 말하는 지리적 개념이므로, 신라 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틀린 진술이 된다. 이것은 역사와 지리적 지식 모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답지 진술이다.

그러나 이렇게 통합 수준이 높은 문항은 과거 수능에서도 많지 않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이의신청이 제도화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감한 답지 진술은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②번 진술에서 낙동강 하류를 남강의 합류 지점 이남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삼랑진에서 물금 구간과, 함안보에서 신천양수장 구간)에서는 산지 사이를 흐르는 협곡 혹은 직류 구간이 나타나지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넓은 평지가 마주하는 개활지 사이를 흐른다. 이곳은 일종의 곡류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곳을 도강하기 쉬운 곳으로 보고, 협곡 구간을 건너기 어려운 곳으로 보았다면, ②번 진술의 앞부분은 판단 불가 진술이 된다. 물론 ⑤번 진술이 명료했고, 정답지인 ④번 진술이 고고학에 의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흔들리지 않으나, ②번 진술의 ‘쉽사리 서쪽으로 건널 수 있었다’의 ‘쉽사리’는 오늘날의 이의신청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수능의 현 상황으로 볼 때, 과거 수능에서 권장해야 할 수준 높은 통합적 답지 진술은 현실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예시 문항과 예비 시행의 통합형 문항은 답지 수준 내에서의 통합은 없고,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일부가 A 과목, 다른 일부는 B 과목으로 안배하는 답지통합형 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수능에서도 통합형 문항의 극상기였던 1997학년도 이후, 통합형 문항이 점점 줄어들어 2001학년도부터는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김재근 등, 2018:57).

과적으로 2024년 9월의 예시 문항 14개는 실제 시행 단계에서의 통합 문항, 비통합 문항의 비율 배분이거나, 각 과목군간 문항 수 비율 배분과는 무관하고, 통합사회 문항이 이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문항 형식에 대한 예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통합 문항, 그것도 일반사회 중심이면서 지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통합 문항 사례를 보면 그림 2의 예시 문항 10번이 대표적이다(그림 2).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리 지식이 필요하며(특별·광역·자치시와 도 지역을 구분해야 하고,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등 지역의 명칭도 알고 있어야 함) 의료급여 제도가 공공부조 범주의 제도인지 사회보험 범주의 제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연히 통합사회 교과서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국 교과

서에 어떤 개념어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8종 교과서의 일정 비율 이상의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으면 출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통합 문항이든 과목군 내 문항이든 지속적인 출제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과목군 내 문항의 경우는 그래도 과목군 내의 지식 내용을 활용하여 꾸준히 문항을 출제할 수 있겠지만, 통합 문항은 교과서 내용 중에 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출제가 가능하므로, 몇 회를 지속하면 통합 문항 소재가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25년 4월 16일 공개한 2028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와 동일한 일정, 인원, 방식으로 통합사회 25문항 전체를 출제할 사례로서, 매우 귀중한 지표를 제공한다(표 3).

표 3의 내용에 따르면 과목군 간 문항 수 및 배점 안내

표 3. 통합사회 예비 시행(2025.4.16.)에서의 문항 배분

번호	성취기준 요약	과목군 귀속 (복수는 통합 문항)	배점
1	시대와 지역별 행복 기준, 행복의 의미	윤리	2
2	환경문제해결	지리	1.5
3	문화권/다문화 사회	지리, 일사	2.5
4	자연환경 관점	윤리	2
5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지리	2.5
6	산업화와 도시화	지리	1.5
7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일사	2
8	문화상대주의와 문화평가/인간존엄성, 헌법, 참여	일사	1.5
9	교통, 통신, 기술 발달	지리	1.5
10	시면혁명과 인권의 확장	역사	1.5
11	인간존엄성, 헌법, 참여	일사	2
12	소수자 보호, 청소년 노동권/평화와 국제갈등	일사	2.5
13	불평등 현상과 실천/정의의 의미와 기준/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일사, 윤리	2.5
14	인간존엄성, 헌법, 참여/행복한 삶의 조건들	윤리	2.5
15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윤리	2.5
16	정의의 의미와 기준	윤리	2
17	자본주의 역사와 시장-정부	역사	1.5
18	평화와 국제갈등	윤리	1.5
19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금융자산과 금융 의사결정	일사	2
20	세계화의 양상	지리	2
21	국제분업과 무역, 지속가능발전	일사	2.5
22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갈등/미래사회와 세계 시민	윤리, 역사	2.5
23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갈등	역사, 지리	2
24	세계 인구분포와 인구문제	지리	2
25	에너지 자원 분포와 기후변화	지리	1.5

출처 : 교육부 예비 시행 결과 공지 중 '교육과정근거'(www.moe.go.kr/)

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음이 나타났고, 통합 문항에서도 특정 과목군의 주도성이 뚜렷했다. 통합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문항 수 기준 16%이고, 배점 기준으로는 19%로서, 모두 20%를 넘지 못했다. 2024년 9월의 예시 문항 공개 때와 비교하면 통합 문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통합 문항의 출제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4개 과목군 간 문항 안배가, 통합 문항을 제외하면 윤리, 지리, 일반사회가 각각 12.5점씩이고, 역사는 3점이었다. 이것은 통합사회에서 역사 내용 요소가 적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통합 문항인 3번, 13번, 22번, 23번을 보면, 각각 지리와 일반사회, 일반사회와 윤리, 윤리와 역사, 역사와 지리 등 각각 2개 과목군이 순환하면서 고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합 문항에서도 과목군 안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 과목군의 내용이 성취기준 진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합사회 과목의 취지상 역사 관련 답지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제1단원, 즉 통합 단원은 문항 개발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2025년 4월 16일 공개된 예비 시행 통합사회

23번 문항이다. 역사와 지리가 통합된 문항으로, 난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은 중국 동북 3성을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리적 개념인 냉대 기후의 위치, 그리고 티벳 자치구의 위치를 추가적으로 물음으로써 역사와 지리의 통합 문항이 되었다. 역시 교과서 내용 근거를 기반으로 출제된 문항으로 교과서 근거에 매우 민감한 문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점 형식을 보면 통합 문항에 2.5점 배점 3개, 2점 배점 1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 문항의 난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과도한 배점 설정으로 보인다. 만약 통합 문항은 1.5점 배점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총 4문항이 아니라, 8문항을 통합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항 수 기준 32%가 되고, 배점 기준 24%가 되어, 적지 않은 통합 문항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안적인 통합 문항 개발의 지향점

과거 수능에서처럼 답지 수준에서의 과목군 간 통합을 수행할 수는 없고, 예시 문항과 예비 시행에서처럼 제1단원 통합을 배제하면서 교과서 내에서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과목군 간 통합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문항 소재의 고갈 가능성을 내포한다면 대안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김기남(2024)과 신소연 등(2025)의 논문에서 제안한 재진술(paraphrasing)을 활용한 것이다. 재진술이란 지문이나 지도,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다른 어휘로 다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말로 하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론 과정이 개입되게 된다. 이 추론의 단계를 너무 여러 단계로 하지 않는다면, 즉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직접 추론이 가능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통합사회의 성격, 곧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 평가,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현하는 길이다(교육부, 2022:106).

재진술을 활용하는 문항은 마치 국어 영역의 비문학 문항과 형식적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교과서의 내용 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없어서 출제할 소재가 없다고 여겨지는 통합사회 1단원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출제할

2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한중 현안 바로 알기〉



중국에서 연구 사업으로 진행한 ㉠이/가 한중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2004년 6월 해당 사무처가 A 지역 관련 연구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연구 내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4년 8월 24일 양측 정부는 다음 내용을 구두로 합의 하였다. 첫째, 중국 측은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것에 유념한다. 둘째, 양측은 향후 역사 문제를 인해 한중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양측은 학술 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이어 양국은 2006년 10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을/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안 된다는 원칙에 다시 합의하였다.

—<보기>—

ㄱ. ㉠은 발해사 연구를 포함하였다.
 ㄴ. ㉠은 태경관 지형문을 근거로 삼았다.
 ㄷ. A 지역에는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ㄹ. A 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 3. 통합사회 예비 시행 문항 23번(역사-지리 통합 문항). 정답: ②

수 있다. 또한 역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통상 여겨지는데, 역사와 무관해 보이는 단원에서도 역사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할 수 있어 진정한 4과목군 통합 문항을 출제할 수 있으며, 역사 문항도 지리나, 일반사회, 윤리 문항과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할 수 있게 된다. 재진술 유형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예시 문항 1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한다.

표 4는 통합사회 성취기준의 과목군 귀속을 예시한 것

으로, 광의적(최대) 해석의 경우와 협의적(최소) 해석의 예시 경우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총 30개의 성취기준을 광의적으로 보면, 역사로 귀속되는 성취기준은 12개이고, 지리는 22개, 일반사회는 27개, 윤리는 17개이다. 비율로 보면 각각 역사 40%, 지리 73%, 일반사회 90%, 윤리 57%인 것이다. 즉 대부분의 성취기준에 일반사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리 내용도 70% 넘는 성취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역사는 40%

표 4. 통합사회 성취기준의 과목군 귀속(역: 역사, 지: 지리, 일: 일반사회, 윤: 윤리)

대단원	성취기준 코드	광의적 (최대해석)	협의적 (최소해석)	성취기준 요약
통합적 관점	[10통사1-01-01]	역지일윤	역지일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
	[10통사1-01-02]	역지일윤	역지일윤	통합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1-02-01]	역지윤일	역지윤	시대와 지역별 행복 기준, 행복의 의미
	[10통사1-02-02]	지일역윤	지일윤	행복한 삶의 조건들
자연환경과 인간	[10통사1-03-01]	지역일윤	지역일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10통사1-03-02]	지윤	지윤	자연환경 관점
	[10통사1-03-03]	징일윤	지일	환경문제해결
문화와 다양성	[10통사1-04-01]	지	지	문화권
	[10통사1-04-02]	지일역	지일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10통사1-04-03]	지일윤	지일윤	문화상대주의와 문화평가
	[10통사1-04-04]	지일윤	지일	다문화 사회
생활공간과 사회	[10통사1-05-01]	지역일	지일	산업화와 도시화
	[10통사1-05-02]	지일	지	교통, 통신, 기술 발달
	[10통사1-05-03]	지일	지	지역변화와 지역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10통사2-01-01]	역일윤지	역일윤	시민혁명과 인권의 확장
	[10통사2-01-02]	일윤	일	인간존엄성, 헌법, 참여
	[10통사2-01-03]	일윤	일	소수자 보호, 청소년 노동권
사회정의와 불평등	[10통사2-02-01]	윤일	윤일	정의의 의미와 기준
	[10통사2-02-02]	윤일	일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10통사2-02-03]	일지	일지	불평등 현상과 실천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10통사2-03-01]	역일윤	역일	자본주의 역사와 시장-정부
	[10통사2-03-02]	일지	일지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
	[10통사2-03-03]	일	일	금융자산과 금융 의사결정
	[10통사2-03-04]	일지	일지	국제분업과 무역, 지속가능발전
세계화와 평화	[10통사2-04-01]	지일	지일	세계화의 양상
	[10통사2-04-02]	일지윤역	일지윤	평화와 국제갈등
	[10통사2-04-03]	지일윤역	지역윤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갈등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2-05-01]	지일	지일	세계 인구분포와 인구문제
	[10통사2-05-02]	지일	지일	에너지 자원 분포와 기후변화
	[10통사2-05-03]	역지일윤	역지일윤	미래사회와 세계 시민

표 5. 신소연 등(2025)의 예시 문항

문항	주제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 요약	비고
1	소빙기와 역사적 위기	[10통사1-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2	금문도, 단절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10통사2-04-02]	평화와 국제갈등	
3	경계 지역에 대한 장소성의 변화	[10통사2-04-03]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갈등	
4	산업의 발달과 인구 변화	[10통사2-03-01]	자본주의 역사와 시장-정부	

출처 : 신소연 등(2025:74-84)

정도로 많지 않다. 특히 자연환경이나 환경문제, 문화권과 같은 단원이나, 교통·통신·기술 발달, 지역변화와 지역사회, 인간 존엄성과 헌법, 소수자 보호, 정의의 기준, 개인과 공동체, 불평등 현상, 합리적 선택, 금융, 국제분업과 무역, 세계화, 평화와 국제갈등, 인구분포, 에너지 자원, 미래사회 등에 대해서는 역사 내용이 없다.

나아가 이를 협의적으로 보면, 즉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역사의 비율은 26% 정도로 더 낮아진다.

통합 문항에 대해 신소연 등(2025)은 4개의 예시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에 구애됨 없이 흥미로운 주제의 글과 자료를 제시하고, 통합사회에서 답을 수 있는 내용을 답지로 요구하는 문항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재를 열어둔다면, 통합사회 1단원에서도 출제가 가능하고, 역사 내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성취기준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다만, 신소연 등(2025)의 문항은 역사 내용이 모두 있다고 여겨지는 성취기준에서 발췌하였고(표 4), 전반적으로 텍스트 길이가 너무 길어 문항의 물리적 크기가 커 A3 양식의 2단 편집에서 하나의 칼럼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 올해 4월 16일 공개된 예비 시행 통합사회 문항지는 총 6면으로, 문항 배치가 여백 없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소연 등(2025)에서 제시된 문항 형태는 좀 더 요약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고찰로부터 통합사회 통합 문항의 출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첫째, 답지 수준에서의 과목군 간 통합 답지 진술은 위험하므로, 문항 내에서 답지 혼합만 가능하다. 즉 A과목군 답지 3개, B과목군 답지 2개로 5지 선다를 구성한다. 한 답지에 A과목군과 B과목군 답지를 인과 형태로 섞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재진술(paraphrasing)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서 소재 근거를 벗어나야만 지속 가능한 출제, 그리고 다양한 통합 문항이 가능하다. 셋째, 통합 문항은 저배점(1.5점), 저난도 문항으로 설계한다. 아마도 이것은 통합 문항을

고난도로 설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출제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취기준 진술상으로는 특정 과목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해당 과목군 관련 답지를 제시함으로써 통합 문항의 출제 범위를 확대해야만 지속 가능한 통합 문항 출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 제시만 있어도 그것이 인간 세계의 현상이라면 역사적, 윤리적, 지리적, 사회적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III. 대안적인 통합 문항

대안적인 통합 문항은 자료 및 답지 통합이어야 하며, 재진술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서 소재를 벗어나야 하되 교과서 진술에서는 개념어 정도의 근거를 가져야 한다. 또한 통합사회 1단원과 같이 과목군 귀속이 특별히 없는 단원에서도 문항 출제가 가능해야 하며, 역사 내용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원에서도 역사 문항 출제가 가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1단원의 첫 번째 성취기준과 두 번째 성취기준에서 예시 문항을 출제하였고, 문화와 다양성 단원의 문화 변동 성취기준, 생활공간과 사회의 교통·통신·기술 발달 성취기준에서 예시 문항을 출제하였다(표 6). 구체적인 각각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시 문항 1

첫 번째 예시 문항의 성취기준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리든, 역사든, 윤리든, 일반사회든 어떠한 과목군의 귀속 개념도 지식 내용도 없다. 다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이 있을 뿐이다(표 7). 부연 설명의 내용은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공간적 관점은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 및 사회 제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이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균형 있게, 치우치지 않고,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서술이다(표 7).

이처럼 교과서마다 거의 일률적인 서술은 교육과정 해

표 6. 본 논문의 예시 문항

문항	주제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 요약	비고
1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식용견 시장의 쇠퇴	[10통사1-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2	몽골초원과 유목제국의 사회	[10통사1-01-02]	통합적 관점	
3	간다라 미술	[10통사1-04-02]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4	경인철도의 개통	[10통사1-05-02]	교통, 통신, 기술 발달	

표 7. 통합사회 통합적 단원의 교과서별 내용

교과서	통합적 관점 1성취기준	통합적 관점 2성취기준	비고
동아출판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우리나라 인구 문제	pp.11~18
리베르스쿨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전태일의 평화시장, 여려가지 환경 문제	pp.11~17
미래엔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기후 위기	pp.11~14
비상교육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교통체증, 감염병, 세계의 기아, 철도 노선 문제	pp.10~17
아침나라	시간적 관점: 시대 배경과 맥락 공간적 관점: 위치, 장소, 지역, 이동, 분포, 네트워크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기후변화, 노키즈존 설치 문제	pp.8~12
지학사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저출산, 아동노동, K컬처, 지역갈등(폐기물처리장), 반려동물, 지속가능발전	pp.13~18
창비	시간적 관점: 역사적 맥락 공간적 관점: 분포, 공간관계, 기능, 네트워크, 이동성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사회제도, 사회적상호작용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인공지능기술, 교통약자 문제, 축구	pp.9~15
천재교과서	시간적 관점: 역사 배경, 시대 맥락 공간적 관점: 장소, 지역, 공간 상호작용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및 제도 윤리적 관점: 도덕적 가치와 규범	통합적 관점: 총체적 사례: 감염병 확산, 여가 생활	pp.15

1. 다음 대화 내용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교사: 이번 시간은 수행평가 과제 중간 발표 시간입니다. 갑 조부터 발표해 볼까요?

학생: 저희 조에서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식용견 시장의 쇠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발표된 한 민간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8.5조원에 이르렀고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꾸준히 존재해 왔던 식용 개 시장은 2027년 전면 금지를 앞두고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①소득 수준의 성장,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경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가축으로서의 개 사육 두수는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인구 1000명당 개 사육 두수가 20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사: 언론보도, 정부 통계, 그리고 관련 논문까지 훌륭하게 조사하여 정리했군요. 통합사회의 관점에서 (가) 관점이 빠져 있네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까지 ㉡() 발표해 주세요.

- ① ㉠은 사회적 관점 중 사회 구조의 변화보다는 사회 제도의 변화에 해당한다.
- ② ㉡에는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반려동물을 더 많이 기른다.”는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가) 관점이 역사적 관점이면, ㉡에는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적절하다.
- ④ (가) 관점이 윤리적 관점이면, ㉡에는 “본인이 사는 곳 주변의 애견용품점 수를 조사하여”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의 4개 관점 모두에 대해, ㉡에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관련 부분을 읽고”가 적절하다.

그림 4. 예시 문항 1. 정답: ② (참고: 강진일보, 2024)

설에 각 관점에 대한 정의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2022:110). 그리고 통합적 관점은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각 교과서는 통합적 관점의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 전태일의 평화시장, 환경 문제, 기후 위기, 교통 체증 문제, 세계의 기아 문제, 지역 간 폐기물 처리장 갈등 문제, 아동 노동 문제, 인공지능 기술 문제, 축구, 감염병 확산 문제 등이다

(표 7). 교과서들은 각 사회 문제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예시 문항은 성취기준 [10통사1-01-01]에 제시된 통합사회의 네 가지 관점 관련 문항이다.

문항의 소재는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폭발적 확대 및 정반대인 식용견 시장의 위축 문제를 선택하였다. ①번 답지는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를 구별하도록 하는 진술이고, ②번 답지는 학생의 조사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이다. ③, ④, ⑤번 답지는 단순 진위 여부 답지로서 학생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역사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이 어떤 자료와 관련될 수 있는지 추론하도록 하는 답지이다. 본 문항은 낮은 난도의 문항으로 자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출제의 용이성도 확보되는 문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활용된 재진술 방식은 ①번 답지의 경우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라는 두 개의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재진술 문장이며, ②번 답지의 경우 자료에서 언급한 특별시·광역시 대비 도 지역의 가축으로서 개 사육 두수 관련 내용을 다른 말로 진술하여 참인 답지로 구현하였다. 출제의 관건은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항의 자료가 통합사회 내용 지식의 일상적 활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진술 형식의 도입은 큰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항의 사이즈는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2025년 4월 16일자)의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로 12cm에 세로는 20cm를 넘지 않았고, 줄간 150, 폰트는 11.5를 따랐다.

2. 예시 문항 2

두 번째 문항은 통합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성취기준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탐구에 적용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 내용도 그렇고 특정 과목군에 독립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내용이다. ‘총체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러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라는 것이 교과서 서술 내용이자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내용의 전부이다(표 7). 교과서들은 다채로운 사례를 들고 있고 어느 하나의 사례로 수렴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례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문항의 출제도 가능하다.

문항 소재는 『돌킬 유목제국사』의 지리적, 사회적 배경

2. 다음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가) 유라시아 유목민의 무대 중에서 세계사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 초원이었다. (㉠) 초원은 흉노에서부터 돌궐을 거쳐 몽골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목제국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중심 무대였을 만큼 유목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은 이 위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물자 공급지를 배후에 두고 서쪽의 오아시스로 진출해 서방에 위치한 정주 지대의 거대한 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나) 유목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다. 또한 유목민들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물이사냥이나 계절적 이동 내지는 공동 행사 등을 위해 보다 큰 단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것이 유목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이른바 “바그”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씨족 정도의 규모를 가진 “보드”라는 작은 단위가 여러 개 묶인 “보둔”이 있었다. 보드는 대가족 내지 친족 정도를, 보둔은 그것의 복수로 여러 개의 친족 집단이 모인 단위 안에서 백성 또는 구성원 정도의 의미였다. 이 바그의 구성원인 보둔에는 약탈이나 전쟁 등으로 그 내부에 다른 족속도 포함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족 집단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이 바그의 지도자를 “백”이라 불렀다. 씨족 정도의 단위인 바그의 상위에, 이런 단위 몇 개가 연합하면 “일”이 되었다. 일은 바그가 여러 개 모인 하나의 연합이라 이른바 부족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일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제천행사에 참여해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며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 ① 갑: 유목민 거주 지역을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자료야.
- ② 을: ㉠은 중국의 북쪽에 있는 초원 지역이야.
- ③ 병: (나)의 유목 사회도 성문법에 기초한 제도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정: 보둔에는 부계 친족 집단만이 소속되어 있어.
- ⑤ 정: ‘백’은 ‘일’의 지도자를 일컫는 이름이야.

그림 5. 예시 문항 2. 정답: ②

서술 부분에서 발췌하였으며, 유목 사회의 지리적 특징과 사회조직적인 특징을 잘 서술하고 있다. ①번 답지는 (가), (나) 자료에 지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그리고 역

사적 관점이 있지만, 윤리적 관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묻는 것이다. ②번 답지는 유목이 가능한 초원이면서 몽골의 주무대였던 곳이라면 “몽골 초원”일텐데, 그 위치가 중국으로부터 어느 쪽인지 묻고 있는 단순한 진술이다. ③번 답지는 (나)에 서술된 유목 사회의 사회 조직이 성문 제도인지 관습적인 제도인지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진술이다. ④번 답지는 지문을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진술이다. 지문은 작은 집단에서 큰 집단 순으로 서술하지 않고, 작은 집단을 먼저 서술하다가 큰 집단을 서술하고, 그 안의 중간 집단을 뒤에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야 진위를 알 수 있다. ⑤번 진술은 ‘일’이라는 단위의 지도자 명칭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진술이다. 본 예시 문항의 답지에서도 ③~⑤는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진술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3. 예시 문항 3

세 번째 문항은 문화 변동 단위, 곧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지니는 의의를 탐색한다”는 단원으로서 전형적인 일반사회 과목군에 주로 귀속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취기준이다. 실제 교과서 서술도 문화 변동의 요인을 발명, 발견, 전파(직접, 간접, 자극)로 구분하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접변, 병존, 융합, 동화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모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각 개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은 말 그대로 과목군 귀속 내용이 사실상 없이 사례들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에서 역사 내용이 개입될 수 있을까? 일부 몇몇 교과서에 문화 융합의 사례로 간다라 미술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하여 해당 지문을 작성해 보았다. 물론 이 지문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착안해 낸 것이다(그림 6).

이 문항은 과반 이하의 일부 교과서에 제시된 소재를 활용한 것이다. ①번 답지는 제시된 지도로부터 쉽게 추론 가능하며 지리적 추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②번 답지는 일반사회에 문화 융합과 문화 동화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술이다. ③번 답지는 간다라 미술의 영향이 우리나라 석굴암에도 미친 것을 확인하는 진술인데, 답은 인도의 불교 발상지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④번 답지는 알렉산더 대왕과 아케메

표 8. 통합사회 문화와 다양성 단원의 2번째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

교과서	문화변동 및 전통 문화	사례	비고
동아출판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나일론, X선 고추, 체로키 문자, K콘텐츠 간다라 양식, 말라카 하모니 거리, 만주 변발, 인도 다언어, 강화 성당	pp.94~101
리베르스쿨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뉴튼 사과, 바퀴 크리켓 강화 성당, 토마토 김치, 안산시, 북미 식민지	pp.84~88
미래엔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떡볶이의 변주, 이두 알렉산더의 사탕수수 차이나타운, 말레이시아 다종교, 강화성당, 북미 원주민, 멕시코 성당	pp. 80~84
비상교육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세탁기 크리켓, 간다라, 케첩, 빵, 부대찌개 원주민 기숙학교, 코리아타운, 강화성당	pp.92~97
아침나라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X선, 체로키 문자, 접자, 커피 변발, 산신각, 양력과 음력, 라오스 빠투세아, 페루 가위춤, 싱가포르 호커, 나이지리아 언어	pp.82~86
지학사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문익점, 이두 팁 문화, 화교, 햄버거	pp.98~100
창비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에디슨, 체로키 문자 일제 일본어 교육, 나바호족 은세공, 베트남 반미,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pp.85~87
천재교과서	문화변동 요인: 내재(발명, 발견), 외재(전파·직접, 간접, 자극) 문화변동 양상: 접변, 동화, 병존, 융합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몽골군의 다진고기 요리, 햄버거, 목화씨, 이두, 말 레이시아 다종교, 재즈, 식민지 유럽 종교, 인도의 다언어, 과달루페 성당, 원주민 언어, 마라요리 등	pp.88~92

네스 페르시아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묻는 진술이지만, 사실상 본문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다. ⑤번 진술은 간다라 미술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다. 아마도 이 진술이 너무 어렵다면 관련 내용을 지문에 추가해 줄 수 있다. 역사 교과서의 소재 단서를 근거로 몇몇 자료를 찾아서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는 문항이다.

4. 예시 문항 4

네 번째 문항은 교통·통신·기술 발달에 관련된 문항이

다. 구체적으로는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교통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성취기준의 교과서 서술은 매우 간단하다.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면서 생활권이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기타 교외화나 대도시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교과서도 있지만 크게 생활권 확대, 시공간 압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표 9).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이처럼 무척 단순하기 때문에 역사 내용 요소가 연결될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간다라” 지방에서 기원한 간다라 불교 미술은 동양의 인도 문화와 서양의 그리스-로마 문화의 (가) 으로 유명하다. 특히 간다라로 전파된 대승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래된 후 한반도까지 들어와 (나) 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우리에게 남다른 인상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다. 간다라 지방은 과거의 서북 인도, 지금은 파키스탄 북부의 페샤와르 분지 지역에 있다. 서양의 그리스에서 어떻게 이 4천 km가 넘는 먼 곳까지 문화적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보통 ㉠알렉산더 대왕의 서북 인도 정복(BC 327~325)만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실 중앙아시아 박트리아나 간다라 지방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다리우스 대제는 소아시아의 반항적인 그리스인들을 제국의 동쪽 끝인 중앙아시아와 서북 인도로 이주시켰다. 간다라는 기후 조건도 온난 건조하여 그리스와 비슷했으므로, 불교가 전파되기 몇백 년 전부터 그리스 문화가 이 지역에 뿌리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아쇼카 왕은 자신의 영토 서북쪽인 간다라에도 불교를 전파했고,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어 중앙아시아와 서북 인도를 통제한 그리스계 장군들의 왕국은 불교도가 다수인 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불교를 수용했다. 그리하여 간다라 지역에는 ㉢그리스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된 불교 미술이 꽃 피우게 된 것이다.

- ① 히말라야 산맥은 불교의 중국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 ② (가)에 들어갈 용어로는 ‘융합’보다는 ‘동화’가 더 적합하다.
- ③ (나)의 사례로 신라 시대의 삼층 석탑이 적절하다.
- ④ ㉠은 ㉡을 계승하였다.
- ⑤ ㉢의 특징으로 사실적인 옷 주름 표현이 있다.

그림 6. 예시 문항 3. 정답: ⑤

표 9. 통합사회 교통·통신·기술 발전 성취기준의 교과서 서술

교과서	문화변동 및 전통 문화	비고
동아출판	생활권 확대, 지리정보시스템	pp.132~133
리베르스쿨	대도시권 형성	pp.120~121
미래엔	일상생활범위 확대, 경제활동범위 확대, 교외화, 대도시권 형성, 여가공간 확대, 생태환경변화	pp.116~117
비상교육	생활공간확대, 생활권확대, 조미 수교와 보빙사 파견 및 세계 일주	pp.129~130
아침나라	1899년 경인선 개통 등, 생활공간확대, 지리정보시스템 GPS	pp.118~120
지학사	생활권 확대, 초연결사회, 미대면접촉	pp.138~139
창비	접근성 향상, 대도시권, 시공간제약 감소	pp.123~124
천재교과서	경인선철도, 정보화, 생활공간확대, 경제활동 확대	pp.126~128

러나 관련된 소재로서 경인선 철도나 보빙사 파견 등 구한말 또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사실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과반 이상의 교과서 서술에서 이 소재를 다룰 가능성은 희박하며, 실제로 경인선 철도를 다룬 경우는 1개 교과서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의 제약을 크게 두지 않고 재진술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사전 지식을 기반으

로 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통합 문항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은 경인선 철도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통합형 문항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 문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의 독립신문(서재필) 기사 내용이다. (가)는 1899년 9월 16일자 경인선의 기종점 및 정착역의 시각이고, (나)는 요금에 관한 것이다. ①번 답

3. 다음은 경인선에 대한 독립신문의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화륜거 왕래 시간. 경인철도에 화륜거 운전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는데, 인천에서 동으로 향하여 매일 오전 7시에 떠나서 유현에 7시 6분, 우각동에 7시 11분, 부평에 7시 30분, 소사에 7시 50분, 오류동에 8시 15분, A에 8시 40분에 당도한다더라. ... (중략) ... 또 A에서 매일 오후 3시에 떠나서 오류동에 3시 30분, 소사에 3시 51분, 부평에 4시 5분, 우각동에 4시 30분, 유현에 4시 35분, 인천에 4시 40분에 당도한다더라. [㉡독립신문 1899년 9월16일].

(나) 화륜거 승객. 경인 철도 개통하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래에 2등 이상의 객차는 일본 사람들이 탈 것이요 3등의 객차는 대한 사람과 청국 사람들이나 많이 타리라고 미리 짐작들 하고 해 철도 회사에서 화륜거 값을 마련한 때에 참고 한 것일러니, 마침내 화륜거를 개통한 이후에 실제 상황을 본즉 당초에 일본 사람들의 미리 생각하던 것과 전혀 반대가 되어 일본 사람들은 흔히 3등 객차를 가장 많이 타고 2등 이상 객차는 대한 사람과 청국 사람들이 많이 타며, 또 객차 타는 각국 사람들의 수효를 비교하자면 대한 사람은 그만두고 일본 사람과 청국 사람을 비교하면, 청국 사람의 객차 타는 수효가 일본 사람의 객차 타는 수효보다 더 많다고들 한다더라. [독립신문. 1899년 10월 9일].

- ① A는 노량진이다.
 - ② 경인선 개통 시 기종점 통행 시간은 1시간 40분이다.
 - ③ ㉠의 개통으로 서울의 생활권이 확대되었다.
 - ④ ㉡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이다.
 - ⑤ (나)의 자료로 볼 때 실제 가장 높은 통행료를 지불했던 사람들은 예상과 달랐다.
- *기종점 통행 시간: 출발점에서 종점까지의 운행 시간

그림 7. 예시 문항 4. 정답: ④

지는 경인선의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기종점이 노량진인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②번 답지는 지문을 잘 읽으면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③번 답지는 교통 및 통신 단원의 기본적인 원리와 같은 것이다. ④번 답지는 이 독립신문이 같은 이름의 임시정부 기관지와 구별하는 것이다. 경인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이므로,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위를 추론할 수 있다. ⑤

번 답지 역시 주어진 자료로부터 추론 가능한 진술이다. 이와 같은 문항은 출제가 어렵지 않고 소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새로운 문항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2028학년도부터 시행하는 통합사회 단일 과목 수능 체제에 대비하여 통합 문항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었던 과거 수능에서의 통합 문항, 그리고 2024년 9월 공개된 예시 문항 14개, 2025년 4월 16일 공개한 예비 시행 25개 문항을 비교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문항 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의신청 제도가 상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수능과 같은 수준 높은 통합 문항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답지 안에 둘 이상의 과목군에 귀속되는 진술을 작성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둘째, 통합 문항은 지난도 문항으로 설정하며, 배점은 1.5점으로 설계하고, 8문항 내외의 배치가 적절하다. 셋째, 교과서에 주제는 물론 소재까지 근거하도록 강제한다면, 지속 가능한 출제는 불가능하다. 개념과 원리, 주제는 교과서 근거를 갖도록 하더라도, 소재나 사례는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제기되는 선지식 문제는, 재진술(paraphrasing)을 통하여 문항의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추론 가능한 것을 답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넷째, 통합사회 1단원인 통합 단원을 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목군 귀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취기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활용하여 해당 과목군 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이후 통합사회 수능 체제가 지속 가능한 문항 출제와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 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사회와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 호[별책 7],” 교육부.
 김기남, 2024, “통합사회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지정에 따른 지리교과 영역 중심의 사회과 통합 평가,” 대한지리학회지, 59(2), 249-267.

- 김재근·배화순·송성민, 2018, “통합사회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초기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형 문항 분석-” 시민교육연구, 50(3), 49-76.
- 배화순·송성민·김재근,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사회과 통합형 문항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0(4), 103-128.
- 성경희·장의선, 2019,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적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통합사회] 평가틀 및 예시 문항 개발 연구” 사회과교육, 58(1), 21-42.
- 송성민·김재근·배화순, 2020, “사회과 통합형 평가문항의 유형 및 특성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273-300.
- 신소연, 2025,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 및 문항 분석을 통한 역사 영역 적용 검토와 개선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0), 551-570.
- 신소연·김기남·서민철, 20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출제 및 발전 방안 -지리와 역사 교과 영역의 통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88, 49-92.
- 임영신, 2024,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영역의 지리교육적 접근: 도시하천의 복개와 복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3(1), 73-93.
- 함경림, 2024, “자연기반해법의 지리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13(4), 317-333.
- 구정화·오정준·이재현·이진희·강정구·송훈섭·홍용기·김형남·최지나·송성민·김태환·윤예린, 2025, 「통합사회1, 2」, 동아출판사.
- 박병기·김병선·김수정·이철훈·조수용·이은영·양현서·신희정·이한맘·신두인·황상표, 2025, 「통합사회1, 2」, 리베르스쿨.
- 박윤경·전보애·추정완·범영우·최준화·이성국·한보라·이윤구·강병희·채나미·김주환·심소현, 2025, 「통합사회1, 2」, 천재교육.
- 안재섭·박지운·박영경·이철욱·신복숙·최광희·김신철·유상철·고경수·황재성·박경일·김부현, 2025, 「통합사회1, 2」, 지학사.
- 이영호·박보람·이우평·최도성·서정일·윤정현·주우연·조명훈·하진봉, 2025, 「통합사회1, 2」, 비상교육.
- 정창우·문일호·신종섭·이수빈·이주은·박홍인·전정재·홍정민·박용우·김현정·박재현·김봉식, 2025, 「통합사회1, 2」, 미래엔.
- 조지욱·이정식·이효진·엄정훈·김경오·송민구·강은경·강혜원·노유리·이호균, 2025, 「통합사회1, 2」, 아침나라.
- 조철기·이정우·김병연·김대훈·김동규·김한승·김혁준·송원석·우선하·이은주·장준철·최영진·허진만, 2025, 「통합사회1, 2」, 창비.
- 강진일보, 2024, “저무는 개시장, 장사들도 손 씻었다.” (<https://www.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48>)
- 교육부, 2024년 9월 27일자,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 교육부, 2023년 12월 27일자,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2023 가족통계”(http://www.mafra.go.kr)
- 동아일보, 2023년 10월 13일자, “수능 ‘선택과목 폐지’ 6년 전에도 검토…당시엔 ‘고교교육 파행 우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013/121648783/1)
- 베리타스알파, 2023년 12월 27일자,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2028 대입개편 사교육 확대하나” (www.veritalpha.com)
- 서울신문, 2023년 10월 11일자, “2023 수능 선택과목 쏠림에 6년만에 폐지… 또 바뀌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1003006)
- 연합뉴스, 2025년 1월 20일자, “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060300530)
- 교신 : 김기남,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메일: cygnusv@kice.re.kr)
- Correspondence: Ki-nam Kim, 27873, 8 Gyohak-ro, Deoksan-eup,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Email: cygnusv@kice.re.kr)

투고접수일: 2025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2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5년 6월 17일

부 록

[부록] 통합사회1, 2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요약

대단원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	성취기준 요약
통합적 관점	[10통사1-01-01]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
	[10통사1-01-02]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탐구에 적용한다.	통합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1-02-01]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시대와 지역별 행복 기준, 행복의 의미
	[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행복한 삶의 조건들
자연환경과 인간	[10통사1-03-01]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의 권리임을 주장한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10통사1-03-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안한다.	자연환경 관점
	[10통사1-03-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생태시민으로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문제해결
문화와 다양성	[10통사1-04-01]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	문화권
	[10통사1-04-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한다.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10통사1-04-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평가한다.	문화상대주의와 문화평가
	[10통사1-04-04]	다문화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다문화 사회
생활공간과 사회	[10통사1-05-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산업화와 도시화
	[10통사1-05-02]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교통, 통신, 기술 발달
	[10통사1-05-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탐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한다.	지역변화와 지역사회
인권보장과 헌법	[10통사2-01-01]	근대 시민 혁명 등을 통해 확립되어 온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주거, 안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시민혁명과 인권의 확장
	[10통사2-01-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실천한다.	인간존엄성, 헌법, 참여
	[10통사2-01-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소수자 보호, 청소년 노동권
사회정의와 불평등	[10통사2-02-01]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구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정의의 의미와 기준
	[10통사2-02-02]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10통사2-02-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불평등 현상과 실천

[부록] 통합사회1, 2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요약 (계속)

대단원	성취기준 코드	성취기준	성취기준 요약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10통사2-03-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비교 평가한다.	자본주의 역사와 시장-정부
	[10통사2-03-0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탐구한다.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
	[10통사2-03-03]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금융자산과 금융 의사결정
	[10통사2-03-04]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국제무역의 방안을 탐색한다.	국제분업과 무역, 지속가능발전
세계화와 평화	[10통사2-04-01]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세계화의 양상
	[10통사2-04-02]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 사회의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조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행위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탐색한다.	평화와 국제갈등
	[10통사2-04-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갈등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2-05-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세계 인구분포와 인구문제
	[10통사2-05-02]	지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개인적 노력을 탐구한다.	에너지 자원 분포와 기후변화
	[10통사2-05-03]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미래사회와 세계 시민